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 자성이 만법 들이고 뉘를 믿고 깨쳐야

## 15면에서 계속

가 해서 읽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란 과거에 내가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독사같은 마음을 냈으면 독사굴에 들게 되고 천사같은 마음을 냈으면 상천세계로 승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니깐 단 한순간이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으로 열심히

하며 다시 놓고 관해보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뉘를 믿고 그것을 깨우치려 하는 것이니 그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죽은 영혼의 행동 이해 안되요

문 스님의 말씀 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마음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 오관이 없듯이 사방이 깜깜하여 헤매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혼이라고 할까요) 살아 있는 사람같이 자기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보기도 하고 친구집에도 가기도 하면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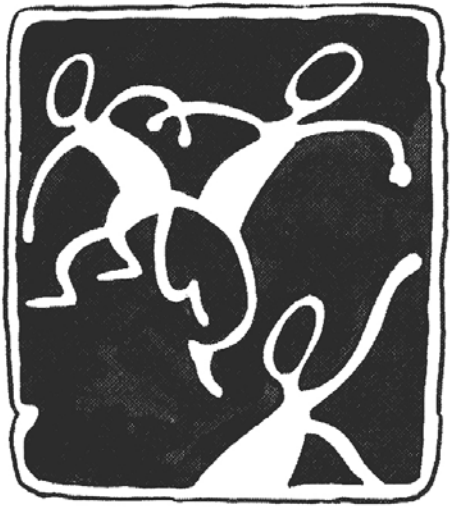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하면 먹지도 입지도 말아야 하니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렇게 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 물질과 정신 딜레마에 빠져...

문 마음공부는 하지 않고 물질세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부가 참 좋다고, 열심히 절사구 자랑하고 싶어도 그러면 정신은 왜 그렇게 꼬들꼬들 사느라하는 반론에 그만 말이 막힙니다. 스님, 저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갈림길에서 진퇴양난입니다. 길을 인도 해주세요.

답 우리에게 몸뚱이가 없다면 세상 살아가기 무효이고 정신세계가 없다면 또 무효일테지요.

물질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 몸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있어 몸이 따르지 따로 따로가 아니겠습니까? <반야심경>에도 나오지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수상행식도 대장부담과 살면 그게 의미있는 삶이라고 고집되게 말할 게 없으니 공인대 거기에 정신 따로 세우고 물질 따로 세우게 도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한데 붙어 돌아가는 것이니 나는 물질세계 위주로 산다, 정신세계 위주로 산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여여하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나 쪼들리면 쪼들리는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게 다 주인공의 나뉠이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지 마시고 열심히 놓고 관하면서 사세요.

성령 물질에 쫓겨 쪼들린다 해서 마음도 쪼들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대자유인이 되는 공부이지 그런 일에 매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일체를 툭 털어버리고 대장부담과 살면 그게 의미있는 삶이 아니고 뭘겠습니까?

### 온가족 선원에 다녔으면

문 제 집 큰머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작은머리에게 절에 다니길 권하면 '형님부터 가면 저도 가겠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현대불교신문을 불러치면 다름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소망이 있다면 다 같이 선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로지 한마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만...

답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따르지 몸으로야 어찌 아난치고 역경내치고 역지로 요구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오직 한마음 주인공에 놓고 관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해보세요. 하다가 지쳐도 오고 감정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금씩 내서는 안됩니다. 믿음이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보이지 않음이 되고 그렇게 통신이 되어야 반응이 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좀체로 반응이 오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것마저 '주인공, 아무 반응이 없는데 왜지?' 하고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지체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주인공 감사해!'

죽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죽어서 오관이 막히고 분별이 없으면 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음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을 사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 줄 수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육신이 무너지면 의식작용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꿈 속에서 해매듯이 육신이 있었을 때 의식(업식)만은 생전의 차원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다른 몸을 또 취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후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그 답을 찾으려 애쓰기 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를 모른다면 사후세계를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공부가

를 뿌리고 그 과보를 받는 게 인과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독사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독사굴에 들어가는 과보가 따르고 천사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상천세계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육도윤회는 다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기에 일반도 살아서 열반이지 죽어서 열반이 아닙니다. 부처라고 한다 해서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각 깨달으면 그게 부처요 못 깨달으면 상생입니다. 깨달으면 몸을 받고 안받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저는 서울시는 37세 남성입니다. <한마음대담집> <영원한 나를 찾아서> <두> 등을 서점에서 구입해 보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의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집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문득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하신 스님말씀이 떠오른 뒤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찾으라는 주인공은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답 '없다'는 것은 아주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된 게 없으니 집착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체의 걸림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는 대장부 삶을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나'라는 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없다면 허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문 스님의 크신 가르침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 말로 하자면 그렇게 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지켜보는 그 자체와 대상이 몽땅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께 '내가 죽어 나를 보리라'고 일러드렸던 것이고, 세번 죽어 일체만물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도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법회에 자주 나오시고 한마음 요점을 함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힘들다고 회피하며 제 앞에 덕친 일 하나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 안녕과 스님의 건강을 잠시나마 기원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이 길이 쉽다면 세수하다가 코만 지기 만거나 쉽고 어렵다면 은산철벽이지요. 마음이 그와 같으니 한눈 팔지않고 이 공부를 잘해 나가시길 잘 믿습니다.

## 마음공부는 우선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고 행해서는 스스로 맛을 봐야 합니다

###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 저는 서울시는 37세 남성입니다. <한마음대담집> <영원한 나를 찾아서> <두> 등을 서점에서 구입해 보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의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집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문득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하신 스님말씀이 떠오른 뒤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찾으라는 주인공은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답 '없다'는 것은 아주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된 게 없으니 집착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체의 걸림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는 대장부 삶을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나'라는 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없다면 허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답 '없다'는 것은 아주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된 게 없으니 집착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체의 걸림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는 대장부 삶을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나'라는 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없다면 허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 자신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문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문 누구라도 깨우치기 전에는 다 부족하지요. 그걸 알기에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목 마를 적마다 물 한잔씩 얻어 자시라 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의 샘물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나도 먹고 남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들 일러드렸으니 자주 내게 물으려 하지 마시고 제발로 일어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 수행에 필요한 가르침 주세요

문 제가 스님의 수행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생활 중에 일체 경계를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는 것. 처음엔 그냥 이렇게만 알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시간이 나면 '깨달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면서 관하는 것. 이것도 법문 중에 들었는데, 그 외 수행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없는지요? 어느 책에서 보면 좌선하고 일어날 때 눈, 얼굴을 비벼주고 마음을 비갈 대상에 풀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수행에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지...

제가 초보지라서 잘 모르고 혹시 내가 뭘 틀리게 하고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게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 행주좌와 일거수 일투족에서 주인공을 관한다면 하루 24시간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시간을 내서 하루 30분씩이라도 좌선을 하게 보람은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거수 일투족 일체를 주인공이 한다고 관하면 그게 바로 공부요 이 공부가 무르익는 길입니다.

### 스님된 친구 분 뒤 절망감에...

문 언제나 저회결에서 함께 하시며 에너지 주셔도 받아먹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친구였던 스님과 저는 두달래 길로 출발했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저는 속복을 입고... 10년 후에 만난 저는 제 위치를 보았습니다. 승과 속은 둘이었고 하늘과 땅의 큰 차이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짙짙한 뉘를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대단하며 살아온 제 과거는 그냥, 해지는 줄모르고 소꿉장난에 빠진 철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주세요.

답 수백년된 동굴의 어둠도 촛불 하나 밝히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길이 나쁘다 하지만 마음 한번 돌리면 승과 속이 어디 붙어있습니까? 소꿉장난도 많이 해보셨더니 그 소꿉장난하던 '나'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쉽겠네요.

# 나도 먹고 남도 마실 수 있는 샘물을 찾자 일거수 일투족 관한다면 24시간이 참선

### 사후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문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애착을 소멸할 수 있는 길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 이런 말 여러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나고 죽는 것은 웃을 바래입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은 몸뚱이를 '나'로 알고 애지중지하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탓이지요. 그러니 육신이라는 이 푸대자루 대신에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시면 사후세계가 어떻게 하는 중공중도 사라지게 되지요.

### 죽는다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문 한마음 공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바로 보는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까운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기가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불현듯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물들어 오던 '나'라는 것을 놓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을 세우신거라 생각합니다. 공부과정에서 이런 두려움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바로 그 두려움을 물고 오는 '나'가 죽어야 진정한 나를 보게

### 자성이 자유롭다'는 뜻

문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스스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주관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요. 이 삶과 세계를 보면 스스로의 한계성이 뚜렷한 것 같은데 왜 큰스님께서는 자성이 자유스럽고 무한하다 하시는지요.

답 이 공부는 본래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며, 자성이 본래 여여하고 청정하다는 걸 깨닫는 공부입니다. 이 건 그 까닭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고 행해서는 스스로 맛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로 알고 있는 그 '나'는 참나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성이 본래의 나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걸 혼동하고 제멋대로 '나'가 어떻게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자성부처를 만나야 합니다.

### 많은 사람이 착한 길 걸었으면...

문 이렇게 큰 스님을 뵈게 되서 참으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큰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큰 살림 잘 꾸러나기하는데, 전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공 자리에 놓는

### 자성이 자유롭다'는 뜻

문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스스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주관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요. 이 삶과 세계를 보면 스스로의 한계성이 뚜렷한 것 같은데 왜 큰스님께서는 자성이 자유스럽고 무한하다 하시는지요.

답 이 공부는 본래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며, 자성이 본래 여여하고 청정하다는 걸 깨닫는 공부입니다. 이 건 그 까닭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고 행해서는 스스로 맛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로 알고 있는 그 '나'는 참나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성이 본래의 나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걸 혼동하고 제멋대로 '나'가 어떻게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자성부처를 만나야 합니다.

### 많은 사람이 착한 길 걸었으면...

문 이렇게 큰 스님을 뵈게 되서 참으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큰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큰 살림 잘 꾸러나기하는데, 전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공 자리에 놓는